

전남도 “추석 연휴 ‘솔라시도’에서 온가족 추억 만드세요”

특산품 판매·민속체험과 마술쇼·레저카트 체험 등 다채 산이정원 한복 방문객 무료 입장 등 ‘추석맞이 한마당’

전라남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에서 플라마켓, 특산품 판매, 공연, 레저카트 체험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열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장해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전남 최초 정원형 식물원 해남 산이정원은 추석 연휴 입장료 할인 이벤트와 ‘추석맞이 한마당’ 행사를 진행한다.

14일부터 18일까지 산이정원 입장객은 입장료 할인 이벤트에 따라 6천 원으로 입장할 수 있다. 특히 한복을 입은 입장객은 무료다.

‘추석맞이 한마당’ 행사는 연휴 첫날인 14일부터 추석 당일인 17일까지 진행된다. 유리·가죽·액세서리 등 핸드메이드 공예제품 판매와 파우치·향수 만들기 체험 등 플라마켓 부스가 운영된다. 산이면 부녀회에서 참여해 지역특산품인 고구마와 송편, 전 등 추석 음식을 판매

한다.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율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과 마술쇼 공연도 펼쳐진다. 프로그램별 운영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산이정원 누리집(www.sanigarde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이정원은 추석 이벤트 외에도 수목화가 이izen 작가 기획전인 ‘산이왕자전’이 열려 산이정원 랜드마크인 어린왕자와 꽃을 주제로 한 30여 점의 예술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하늘마루 정사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작품 ‘인간의 다리(Bridge of Human)’, 물이정원 호수의 거대한 어린왕자 조형물, 산이정원에 첫 번째로 심은 150년 된 동백나무 언덕 등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포토존과 어린이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날씨사냥꾼의 정원, 거미의 숲, 상상놀이터 등이 조성돼

정원 곳곳에 즐길거리가 넘친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레저테마파크도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도민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F1경주장을 축소해 조성한 국제규모 카트장은 매년 추석 명절 기간 1일5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가족이 함께 즐기는 레저스포츠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길이 1.22km의 카트 경기장에서 1인승, 2인승 레저카트를 임대해 주행 체험을 할 수 있다. 추석 연휴 탑승 대기장소에 투호, 제기차기, 율놀이 등 민속놀이 마당이 운영되며, 1930년대 고전적 자동차 디자인을 입힌 클래식 카트도 전시한다.

카트장 주변에는 시뮬레이터 카레이싱 기구를 통해 스틸만점 모터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VR 가상체험관과 오토캠핑장, 자전거도로, 네트어드벤처, 질와이어 등 가족이 함께 즐기 좋은 복합문화공간도



전라남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에서 플라마켓, 특산품 판매, 공연, 레저카트 체험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열린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구성됐다. 카트장, 오토캠핑장 등 레저테마파크는 추석 연휴 상시 운영되며 예약 관련 문의는 KIC사업단(070-4227-7788)으로 하면 된다.

서순철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이번 추석 연휴 힐링, 스포츠, 가족 단위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된 기업도시 솔라시도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앞으로 솔라시도가 관광·레저·탄소중립·스마트시티가 어우러진 서남권의 거점 복합도시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용운 기자

현대차그룹, 사회공헌 프로그램 ‘아이케어 업(i-CARE UP)’

현대차그룹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 ‘아이케어 업(i-CARE UP)’을 통해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일부터 11일(수)까지 2박 3일간 레스트리 리솜 리조트(충북 제천 소재)에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200명을 대상으로 ‘아이케어 업(i-CARE UP)’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목) 밝혔다.

‘아이케어 업’은 아동보호전문기

관 상담원의 직무상 피로감과 이직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담원들이 업무에 자부심을 얻고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우수 상담원들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현대차그룹은 2박 3일간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현대차그룹은 학대 피해자와 행위자를 직접 대면하며 잦은 폭언,

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돕기 위해 ▲컬러 아트 테라피 ▲토크 콘서트 ▲DIY 체험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상담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사례관리 발표 및 시상 ▲공감 및 소통 실습 ▲연사 특강 등을 통해 상담원 간의 업무 교류를 촉진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특히 행사 마지막 날에는 가정사

담 전문가인 오은영 정신의학과 박사를 초청,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주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고민을 함께 듣고 업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아이케어 업’을 매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케어(i-CARE)’ 사업을 펼치던 현대차그룹은 ▲찾아가는 심리상담전문 차량을 지원하는 ‘

아이케어 카’에 이어, 올해 ▲아동 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힐링과 역량강화를 위한 ‘아이케어 업’을 신규 론칭하며 지원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 향후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아이케어 홈’ 사업을 운영해 아동 보호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담원뿐만 아니라 아니라 일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말 ‘자유롭게 이동하는 개인, 안전하게 살

아가는 사회, 건강하게 영위하는 지구’를 위해 우리는 올바르게 움직입니다’라는 CSR 미션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이동(Free Move) ▲안전(Safe Move) ▲친환경·미래세대(Sustainable Move)를 CSR 3대 중점 영역으로 새롭게 선정했다.

그 중 ‘안전’ 영역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부상 군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의료용 착용 로봇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소방관 회복지원을 위한 수소전기버스를 기증하는 등 일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보통의 영웅인 공익직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유빈 기자

